

# 개도국 산업분석 리포트

【산업이슈분석 2010-20】

2010. 12. 8.

## 최근 이라크 정치동향과 경제전망

### 목 차

I. 2010년 3월 총선.....	1
II. 신정부 구성을 위한 권력분점 합의.....	4
III. 석유산업 현황과 향후 경제전망.....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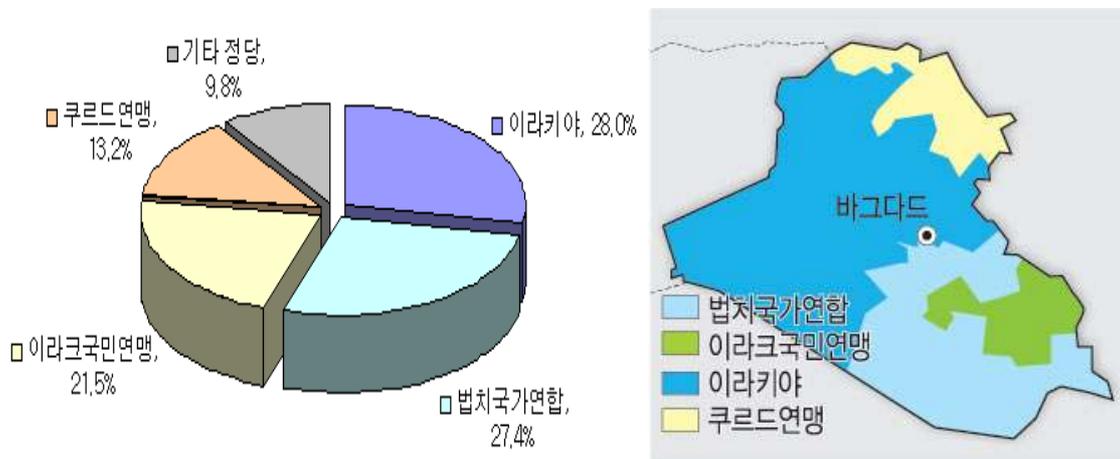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된 2010년 3월 7일의 이라크 총선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치세력이 없어 총선 이후 8개월 간 정국혼란이 지속되면서 신정부 구성이 지연되어 왔음. 그러나 2010년 11월 이라키야, 법치국가연합, 이라크국민연맹, 쿠르드 연맹이 협상을 통해 권력배분에 합의하고 총리, 대통령, 국회의장을 선출함에 따라 신정부 출범이 임박한 상황임. 이렇듯 그 동안 치안불안과 경제재건 지연의 빌미를 제공했던 정국혼란이 어느 정도 수습되면서 이제 경제 재건과 향후 경제성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이라크의 최근 정치동향과 향후 경제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I. 2010년 3월 총선

### □ 총선결과

-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총선은 미국의 개입 없이 단독으로 치러졌으며, 수니파가 불참한 2005년 선거와는 달리 이라크의 모든 종파가 참여하였음.

<그림 1> 정당 연합별 의석 분포





- 이번 총선의 개표 결과, 이야드 알라위 (Iyad Allawi) 전 총리가 이끄는 시아-수니파 정당 연맹체 이라키야(Iraqiya)가 325석 중 91석을 차지하여 1위를 기록하였음.
- 누리 알말리키 (Nouri al-Maliki) 현 총리의 법치국가연합(The State of Law Coalition)은 89석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반미·친이란 성향의 시아파 연합체인 이라크국민연맹(Iraqi National Alliance)은 70석, 쿠르드연맹(Kurdish Alliance)은 43석을 각각 확보하였음.

**<표 1> 주요 정당 연합의 성격과 참여세력**

정당연합	지도자와 성향	주요 참여세력
이라키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야드 알라위 전 총리</li> <li>- 타리크 알하시미 현 부통령</li> <li>- 민족주의 성향</li> <li>- 수니파 최대 정당 연합</li> </ul>	Iraqi National Accord (시아파) Iraqi Front for National Dialogue (수니파) Renewal List (수니파) Hadbaa Party (수니파)
법치국가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리 알말리키 현 총리</li> <li>- 친미 성향</li> <li>- 2009년 지방선거 승리</li> </ul>	Islamic Dawa Movement (시아파) Anbar Salvation National Front (수니파) Independent Arab Movement (수니파) United Independent Iraqi Bloc (쿠르드)
이라크 국민연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딜 압둘마흐디 현 부통령</li> <li>- 반미, 친이란 성향</li> <li>- 강경 시아파 연합</li> </ul>	Islamic Supreme Council of Iraq (시아파) Badr Organization (시아파) Sadrist Trend (시아파) Anbar Salvation Council (수니파)
쿠르드연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잘랄 탈라바니 현 대통령</li> <li>- 쿠르드족 연합 정치 세력</li> </ul>	Kurdish Democratic Party (쿠르드) Patriotic Union of Kurdistan (쿠르드) Gorran-Movement for Change (쿠르드) Islamic Union of Kurdistan (쿠르드)



## □ 총선 후 정국혼란 지속

- 총선 결과 이라키야와 법치국가연합 모두 과반수 의석인 163석에는 한참 모자라는 의석수를 획득함에 따라 이라크국민연맹, 쿠르드연맹 등 타 정당과의 연합을 모색해 왔으나, 정당 간 성향과 이해관계가 상이함에 따라 연정 구성에 어려움을 겪어 왔음.
- 이라크 헌법 76조에 의하면 총의석의 절반 이상을 획득한 정당연합체가 총리 지명권 및 내각 구성권을 갖게 되며, 총리 지명자는 국회 총의석의 1/2 이상의 승인을 얻어 총리로 인준됨.
- 또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누리 알말리키 현 총리 진영이 개표과정에서 광범위한 부정이 저질러졌다고 주장하며 전국적인 재검표를 요구하였으며, 바트당에 참여한 6명의 당선자에 대한 당선 무효가 논의되는 등 선거 후유증에 시달려 왔음.
- 실제로 4월 19일 이라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8석이 배정된 바그다드 지역에 대한 재검표를 결정하고, 11일에 걸쳐 수작업에 의한 재검표를 실시하였음.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6일 재검표 결과 발표를 통해 선거 부정 행위는 없었고 기존 이라키야와 법치국가연합의 의석수에 변동이 없음을 확인함.
- 이러한 정국혼란과 국정공백 상태의 지속은 정파·종파 간 폭력과 정부 기관에 대한 테러공격으로 이어져 이라크의 치안상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함.
- 폭탄테러 등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 수는 2010년 5월 275명, 6월 204명, 7월 396명으로 집계됨. 또한 2010년 3월 이라크 재무부, 6월 이라크 중앙은행과 상업은행들에 대한 폭탄테러 공격이 있었음.



## II. 신정부 구성을 위한 권력분점 합의

### □ 2010년 9월 이라크국민연맹이 말리키 총리 지지선언

- 정당 간 이해관계로 인해 접점을 찾지 못하던 이라크 정국은 2010년 9월 이라크국민연맹 소속 반미 강경 시아파인 무크타다 알사드르(Moqtada al-Sadr)의 사드르 정파(Sadrist Trend)가 말리키 총리 지지를 선언하면서 신정부 구성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게 됨.
  - 이라크국민연맹은 반외세를 주장하는 이라크이슬람최고회의와 반미 강경정파인 사드르 정파가 양대 축인 정당 연합으로, 사드르 정파는 이번 총선에서 40석을 획득하였음.
  - 사드르 정파의 말리키 총리 지지선언에는 이라크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이란의 힘이 크게 작용하였고, 무크타다 알사드르 사드르 정파 지도자는 말리키 총리를 지지하는 대가로 치안관련 요직(내무부 또는 국방부 장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라크국민연맹은 원래 자체적으로 압둘마흐디 (Adil Abdel-Mahdi) 현 부통령을 신임 총리 후보로 지명했지만 사드르 정파의 입장변화로 결국 말리키 총리의 후보 추대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말리키 총리를 신임 총리로 추대하고자 하는 거대 시아파 블록이 형성되면서 말리키 총리는 연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음.
  - 법치국가연합, 이라크국민연맹 등이 연대한 시아파 정치블록 형성으로 말리키 총리측은 의회 325석 가운데 과반(163석)에 가까운 161석을 확보하게 됨.
  - 말리키 총리가 이끄는 법치국가연합은 총선에서 이라키야에 석패했지만 시아파 정파들과 정치블록 결성에 합의한 뒤 대법원으로부터 "최대 의석수를 보유한 정치블록이 차기 총리 후보를 지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음.



## □ 2010년 11월 신정부 구성을 위한 권력분점 합의

- 2010년 11월 8일 쿠르드 자치정부 수도인 아르빌에서 이라키야와 법치국가연합 등 주요 정당이 참석한 가운데 권력분점을 위한 협상이 개최됨.
- 협상 결과 이라키야, 법치국가연합, 쿠르드연맹 등이 권력분점에 합의함에 따라 2010년 11월 11일 이라크 의회는 국회의장, 대통령을 차례로 선출하고 이후 최다수 의석 연합체에 의해 총리가 지명됨.
  - 국회의장으로는 이라키야의 누자이피(Osama Nujaifi) 의원, 대통령은 쿠르드연맹의 탈라바니 (Jalal Talabani) 현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총리직에는 말리키 총리가 지명되었으며, 말리키 총리는 헌법에 따라 30일 내에 내각을 구성해야 함.
  - 총선에서 91석을 획득하여 1위를 차지한 이라키야는 정당 간 연합 등을 통해 차기 총리직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말리키 총리의 연임을 지지하는 거대 시아파 블록이 형성됨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크게 축소됨. 이에 따라 총리직을 법치국가연합에 양보하는 대신 국회의장직을 차지하는데 만족해야 했음.

### 이라크 정부 구성관련 헌법 조항

- 138조 2항. 대통령과 부통령 2인은 의회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선출된다.
- 76조 1항. 대통령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최다수 의석 연합체의 총리 지명을 요청한다.
- 76조 2항. 총리 지명자는 총리로 임명된 후 30일 내에 내각 명단을 상정한다.
- 76조 3항. 만약 총리 지명자가 상기 기한 내 내각을 구성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5일 내에 새 후보를 지명한다.
- 76조 4항. 총리 지명자가 제출한 내각명단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76조 5항. 총리 지명자가 제출한 내각이 신임투표에서 실패할 경우 대통령은 15일 내로 새 내각을 구성할 후보를 지명한다.



## □ 내각 구성을 둘러싼 수니·시아파 간 갈등의 불씨 잠재

- 2010년 11월 주요 정당 간 권력배분 합의에 따라 30여 명의 장관으로 구성되는 이라크 새 내각은 시아파, 수니파, 쿠르드족 등 주요 종파와 정파 모두가 참여하는 형식의 내각이 될 전망이다.
- 내각 구성을 앞두고 수니파는 총선 1위를 차지한 이라키야 인사들이 주요 요직에서 배제될 경우 종파 간 갈등이 촉발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어 내각 구성을 둘러싸고 수니·시아파 간 갈등의 불씨가 잠재되어 있음.

### 이라크의 종파·정파 간 갈등

이라크는 종파·정파 간 이해관계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정치·사회 안정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어 왔음.

이라크의 양대 종파인 수니파와 시아파는 서로 다른 정치이념과 지역기반을 바탕으로 독자 세력을 형성하고 있음. 이라크 바그다드 북서쪽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수니파는 인구의 20~25%를 차지하고 있는 소수파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 후세인 정권 붕괴 전까지 장기간 집권세력으로서 권력을 잡아왔음. 그러나 후세인 정권 붕괴 이후 2006년 시아파 중심의 이라크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집권세력에서 밀려났고 이에 따라 신정부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고 반미 감정이 강하여 테러 활동을 빈번히 전개하여 왔음.

시아파는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세인 정권 하에서는 집권세력에서 배제되어 왔음. 그러나 후세인 정권 붕괴 이후 2005년 12월 총선을 통해 시아파는 말리키 총리를 비롯하여 내각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면서 집권층을 형성하였음. 이번 총선에서 의회 과반의석을 차지하는데 실패하였으나, 거대 시아파 블록 형성에 성공하면서 정권을 유지하게 되었음.

한편, 이라크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후크 (Dohuk), 아르빌 (Irbil), 술래마니아 (Suleimaniyah) 세 개 주로 구성된 쿠르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쿠르드족은 쿠르드 지역에 대한 상당한 자치권을 가지고 독자세력을 형성하고 있음. 쿠르드 자치정부는 석유법, 키르쿠크 관할권 등 정치·경제 현안에 대해 이라크 중앙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쿠르드족은 2005년 12월 총선에서 쿠르드 정당 간 연합을 통해 이라크의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라크 신정부에서 대통령직 및 외무장관직 등 요직을 차지하였음. 쿠르드족은 이라크 인구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자치권 확대를, 장기적으로는 독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 III. 석유산업 현황과 향후 경제전망

#### 1. 이라크의 석유산업

##### □ 이라크 석유산업의 중요성

- 이라크의 석유산업은 GDP의 60%, 수출의 98%, 정부 재정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이라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며 석유는 이라크 국내 에너지원의 95% 이상을 공급하고 있음.
- 또한 원유의 생산능력 확대 및 수출 극대화 등 석유산업의 성장 없이는 인프라 구축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라크의 경제 재건도 불가능함.

\* 미국 정부기관 및 연구단체에 따르면 장기적인 이라크 재건에는 1,00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표 2> 지역/ 국가별 원유매장량 (2008년)

단위: 억 배럴, %

지역별	확인매장량	점유율	국가별 (순위)	확인매장량	점유율
중 동	7,541	59.9	사 우 디 (1)	2,641	21.0
유럽 및 CIS	1,422	11.3	이 란 (2)	1,376	10.9
아 프 리 카	1,256	10.0	<b>이 라 크 (3)</b>	<b>1,150</b>	<b>9.1</b>
중 남 미	1,232	9.8	쿠 웨 이 트 (4)	1,015	8.1
북 미	709	5.6	베네수엘라 (5)	994	7.9
아 · 태	420	3.3	세 계	12,580	100.0

자료: 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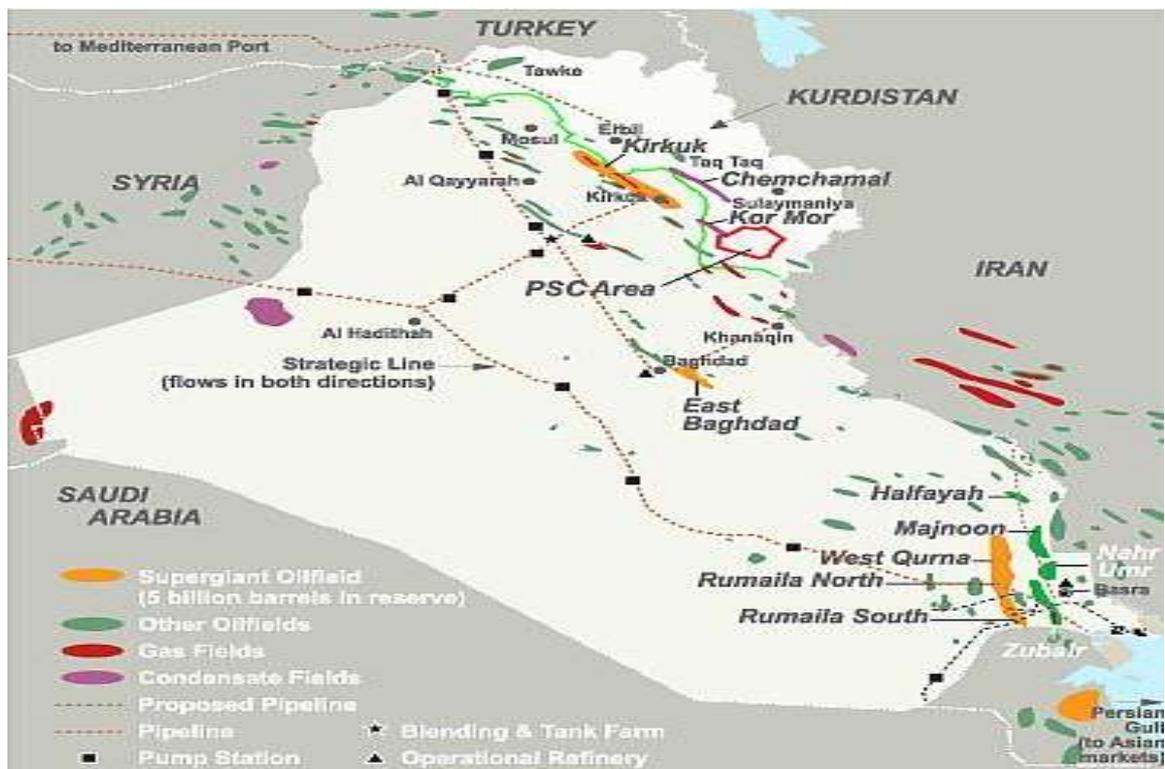
## □ 이라크 석유산업 현황 및 전망

- 이라크는 2008년 확인매장량 기준으로 1,150억 배럴의 원유를 보유하여 사우디, 이란에 이은 세계 3위의 석유부존국가임. 또한 이라크는 이처럼 막대한 확인매장량 이외에도 서부와 남부 사막지대를 중심으로 최대 2,000억 배럴의 잠재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라크에서는 1990년 걸프전 이후 본격적인 유전 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라크 전체의 약 10% 정도만 탐사되어 개발된 것으로 추정됨.

- 이라크의 확인매장량은 바스라(Basrah)를 중심으로 한 동남부 지역과 북부 키르쿠크 (Kirkuk) 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으며, 그 밖에 중부의 바그다드 인근, 북부 모술 (Mosul) 지역, 쿠르드 지방정부 관할지역에도 일부가 산재해 있음. 확인매장량의 70~80%는 동남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20%는 키르쿠크, 모술, 카나킨 (Khanaqin) 등 북부 지역에 매장되어 있음.

<그림 2> 이라크 유전지역 분포현황





- 이라크는 9개의 초대형 유전(확인매장량 50억 배럴 이상)과 22개의 대형 유전 (10억 배럴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 이라크의 주요 유전으로는 동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웨스트 쿠르나 유전 (West Qurna, 216억 배럴), 루마일라 유전 (170억 배럴), 마지눈 유전 (Majnoon, 125억 배럴), 주바이르 유전(Zubair, 40억 배럴)과 키르쿠크 지역의 키르쿠크 유전(100억 배럴)임.

\* 2010년 1월 포브스가 선정한 미래의 세계 10대 유전에서 이라크의 웨스트 쿠르나 유전, 루마일라 유전, 마지눈 유전이 각각 2위, 3위, 4위를 차지하였고, 10대 유전 선정에서 3개 유전이 포함된 국가로는 이라크가 유일함.

◦ 한편, 이라크의 원유는 3분의 2가 동남부 지역에서 생산되고 나머지 3분의 1이 북중부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유전별로는 일산능력 1백만~1.1백만 배럴인 루마일라 유전과 0.6백만~0.75백만 배럴인 키르쿠크 유전에서 대부분의 원유가 생산되고 있음.

<표 3> 이라크 유전별 확인매장량 및 생산능력

유 전	확인매장량 (백만 배럴)	생산능력 (천 b/d)
West Qurna-1	8,700	279
West Qurna-2	12,876	-
Rumaila	17,000	1,000 ~ 1,100
Majnoon	12,500	50
Kirkuk	10,000	600 ~ 750
East Baghdad	8,100	0 ~ 50
Nahr Bin Umar	6,000	10
Halfaya	4,100	3
Zubair	4,000	195
Ajil	3,000	25
Nassiriya	2,600	10
Misan, Buzurgan, Fakka	2,500	100
Bai Hassan	2,300	75
Subha-Luhais	2,200	50
Khabbaz	2,000	30
Gharraf	863	0
기 타	16,200	100
합 계	115,000	2,000 ~ 2,700

자료: Global Insight.



- 이라크 전쟁 이후 이라크의 원유 수출은 치안상황과 원유 파이프라인의 정상가동 여부에 따라 기복을 보여 왔음.
  - 2004년 중반 이라크 전쟁 후로는 처음으로 수출량이 2백만 b/d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는 1.1백만 b/d에서 1.8백만 b/d 사이에 머물렀고 2007년에는 1.6백만 b/d를 기록하였음. 2007년 하반기부터 치안상황이 개선되고 키르쿠크-세이한 파이프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서 원유 수출량은 2백만 b/d 가까이로 회복되었음.
  - 향후에는 2009년 유전입찰\*을 통해 유전 개발권을 획득한 외국 석유기업들의 유전 개발에 힘입어 원유 수출량은 조만간 2백만 b/d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한편, 2008년 기준 이라크의 원유 수출은 80% 이상이 이라크 남부 바스라 항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머지는 이라크 북부의 키르쿠크-세이한 파이프라인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2009년 유전입찰은 1972년 이라크 정부의 석유산업 국유화 이후 37년 만에 실시된 국제입찰로서 석유 업계를 비롯한 세계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음. 1, 2차 입찰로 10개 유전에 대한 외국 석유기업의 개발 참여가 확정됨에 따라 이라크는 원유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표 4> 국가별 원유생산량 (2008년) 및 수출량 (2007년)

단위: 백만 톤, %

국가 (순위)	생산량	점유율	국가 (순위)	수출량	점유율
사우디 (1)	515	13.1	사우디 (1)	339	17.3
러시아 (2)	489	12.4	러시아 (2)	256	13.1
미국 (3)	305	7.8	이란 (3)	130	6.6
이란 (4)	210	5.3	나이지리아 (4)	112	5.7
중국 (5)	190	4.8	U A E (5)	105	5.4
<b>이라크 (11)</b>	<b>119</b>	<b>3.0</b>	<b>이라크 (10)</b>	<b>81</b>	<b>4.1</b>
세계	3,929	100.0	세계	1,957	100.0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09 및 IEA,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09.



- 한편, 이라크의 슈리스타니 (Hussein al-Shahristani) 석유부 장관은 2010년 10월 이라크의 원유 매장량이 1,431억 배럴로 기존에 알려진 1,150억 배럴에 비해 25% 높은 수준이라고 발표하였음. 이는 이라크 내에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채굴이 가능한 매장량을 반영한 것으로 이라크 내 유전지역의 매장량을 합산한 것이라고 밝힘.
  - 이라크의 원유매장량은 그 동안 1,150억 배럴로 알려져 왔으며, 사담 후세인 통치기간 동안 새로운 원유탐사나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매장량 수치에 대한 수정작업이 없었음.
- 또한 이라크가 2009년 10개 유전에 대한 입찰을 성공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기존 유전의 생산량 증가와 함께 신규 유전개발로 인해 원유생산의 획기적인 증가가 전망됨.
  - 단기적으로는 외국 석유회사들의 유전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에 따라 원유 생산량의 증가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 이라크의 원유 생산은 2017년까지 7백만 b/d에 이르고 이후에는 10백만 b/d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이라크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2017년 원유생산능력 12백만 b/d(생산량 기준 세계 2위 수준)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임.

## 2. 경제전망

### □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높은 경제성장 전망

- 이라크 북부 원유 파이프라인 폭탄테러로 인한 원유수출 중단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2010년 이라크의 원유 생산과 수출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라크의 2010년 경제성장률은 2% 중반 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이라크는 원유생산량 2.6백만 b/d, 수출량 2.1백만 b/d를 기록하여 7.3%의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2010년 상반기 원유 수출량이 1.88백만 b/d에 그치면서 예상보다 크게 낮은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2010년 11월 권력분점 합의로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고 외국 석유회사들에 의한 신규 유전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내년 이후 이라크 경제는 11%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표 5> 이라크의 연도별 경제성장률**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5	9.5	4.2	2.6	11.5	11.0

주: 2010년 이후는 IMF 추정치  
 자료: IMF, Country Report, 2010. 10.

**<표 6> 이라크의 원유 생산·수출량**

단위: 백만 b/d,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생산량	2.04	2.3	2.4	2.4	2.8	3.2
수출량	1.59	1.8	1.9	1.9	2.2	2.6

주: 2010년 이후는 IMF 추정치  
 자료: IMF, Country Report, 2010. 10.

## □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외환보유액 안정세 지속

- 환율정책 등을 통한 이라크 중앙은행의 효과적인 물가관리로 2010년 이라크의 물가상승률은 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에도 5%대의 비교적 낮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외환보유액 또한 2010년 46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IMF는 이러한 이라크의 외환보유액 수준을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표 7> 이라크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외환보유액**

단위: %, 억 달러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소비자물가상승률	4.7	6.8	-4.4	6.0	5.0	5.0
외환보유액 (수입개월수)	315 (7.8)	502 (11.0)	443 (8.6)	466 (8.3)	450 (7.4)	458 (7.1)

주: 2010년 이후는 IMF 추정치

자료: IMF, Country Report, 2010. 10.

## □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폭 축소

- 2009년 GDP 대비 21.9%에 달했던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2010년 유가상승과 원유수출 증가에 힘입어 14% 초반대로 축소될 전망이다.
- 또한 향후에도 외국 석유회사의 신규 유전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원유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2011년 8%대로 축소되고, 2012년에는 흑자전환이 전망됨.

**<표 8> 이라크의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GDP 대비 재정수지	12.4	-3.3	-21.9	-14.2	-8.2	3.3
GDP 대비 경상수지	12.5	12.8	-25.7	-14.4	-8.6	-3.0

주: 2010년 이후는 IMF 추정치

자료: IMF, Country Report, 2010. 10.



- 한편, 2009년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GDP 대비 26%에 달했으나, 2010년에는 국제유가 상승과 원유 생산량 증가로 적자규모가 14%대로 축소될 전망이다.
- 또한 향후 원유 생산량 증대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2011년에는 한 자릿수로, 2012년에는 3% 수준으로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 치안안정이 향후 경제성장의 관건

- 외국 석유기업들의 이라크 신규 유전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라크의 원유 생산·수출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라크 정부는 2017년 생산량 기준 세계 2위 수준인 12백만 b/d까지 원유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또한 이라크 경제재건에 1,00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라크 재건시장 참여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그러나 이라크가 과거 치안 불안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원유 생산에 차질을 빚어왔던 경험을 감안할 때, 치안의 안정 없이는 석유산업을 통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이 철군계획에 따라 2010년 8월말 6만 5천 명에서 5만 명으로 감축되었고 나머지 병력도 2011년까지 완전 철군이 계획되어 있어 미군 철수 후 이라크 치안상황이 악화될 경우 이라크의 석유산업과 경제재건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이라키야가 권력분점 협상 과정에서 이라크 권력의 핵심인 총리직을 양보한 만큼 새 내각 구성에서 수니파에 만족할 만한 권력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국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분석됨.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책임조사역 박대원  
3779-6651, parkdw@koreaexim.go.kr